

멸망의 틀을 가진 인간을 새 틀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 복음으로 여는 미가 -

미가2:1-2, 마태복음2:1-6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예배와 경배만 받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영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 치유되며 거듭나며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미가서는 미가라는 남유다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성경 말씀이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겠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가라는 이름은 본래 ‘미가야나, ‘미가야후’를 줄인 이름이다. ‘미’는 영어로 ‘WHO(누가)’, ‘가’는 ‘LIKE(같은)’, ‘야후’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가 이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온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내용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밝히 보여주지 않는가.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허상인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선물,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한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모레셋 작은 지방의 출신으로 남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예언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왜 작은 동네의 미가를 부르셨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외부만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내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백성들이다. 성 안에 사는 부자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약탈을 당한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미가였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왕국과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시골의 서민출신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리더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상태가 안 좋아진다. 잘못하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미가서는 사회에 대한 정의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남북왕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잘못된 종교생활을 했고, 국가의 리더들은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하였으며, 앗수르라는 강대국은 제국의 야욕을 가

지고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다.

1.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옛 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상태였던 것이다.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 바꾸기를 바란다. 나의 세상적인 틀을 성경적인 틀로 바꿔야 한다.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 표준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1)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잘못은 미가서 1장 7절에 잘 나와 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 가리라.’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고 성전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목상을 섬겼다. 심지어 그들이 꾸민 성전과 기구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기생들과 같이 몸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장식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상태였던 것이다.

(2) 앗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괴롭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하였다. 사탄의 울무에 묶인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악한 일들을 자행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 하도다.’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고 백성들도 상처를 입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정서와 인격과 삶은 그야말로 완전히 사탄의 울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 있는 최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가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죄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쫓겨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우리도 데모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했을까?

2. 이렇게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들을 치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틀이다.

(1) 결국 절대 불가능하고 악한 인간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은 방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가장 소외된 작은 도시 중 하나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다. 미가서 5장 2절이다.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시고 주 되셔서 흑암을 꺾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2)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인간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 받아야 할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들어야 한다. 한 번 미리 정리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라. 사도 바울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시면서 고쳐가셨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 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실 것이니라.’ 강단메시지를 자세히 들으라는 말이다. 그래야지 우리는 치유되고 거듭나서 새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불신앙부터 깨져야 하고, 우리의 인격, 말, 태도, 생각까지 깨져야 한다.

(3) 하나님은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전쟁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살롬, 하나님의 평화의 치유가 237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즉, 미가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전쟁과 재앙을 막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이것이 갈보리산, 감람산, 골고다 언덕이며 복음이 선포되고 실현된 산인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서 2장 3절 말씀이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갈보리산(골고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전 세계가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군사력이 높아야지 평화가 오는가. 전혀 아니다. 교회, 강단에서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을 때 재앙이 오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재앙이 왔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은 필요 없다. 시대마다 의인 한 명, 열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4) 미가서는 이렇게 악한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말하는 미가와 같은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전도자 미가의 소중한 고백이다. 미가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가는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바라보았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라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

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다 해결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으로 오늘은 9가지 영적 포인트를 미가서 말씀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들이 묵상해 볼 것이 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중요한 9가지 영적 포인트와 삶의 포인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 높이, 깊이, 넓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1) 하나님의 높은 뜻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바벨탑처럼 교만의 바벨탑만 높이 쌓고 있었던 것이다.

(2) 깊이이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다.

(3) 넓이이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2. 그들은 위, 아래, 좌우를 알지 못했다.

(1) 그들은 위에 있는 것 즉, 하나님, 천국,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다.

(2) 아래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3) 좌우를 보지 못했다. 즉, 그들은 이웃과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축복을 알지 못했다.

3.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1) 과거이다. 유대백성은 민족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았다.

(2) 현재이다.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현재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3) 미래이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4. 그렇다면 이 9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 복음을 정확히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라.

(2)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할 때 가능하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증거해본 적이 거의 없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하라는 것이다.

(3) 강단메시지를 자세히 듣고 적용할 때 미가와 같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237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새 틀을 알려주신 것, 성경적인 새 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담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미가와 같은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